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두치오, 『갈릴래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1308-1311).
나무에 템페라, 이탈리아 시에나 오페라 델 두오모 박물관.

† 오늘의 전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6-20 참조)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의 첫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선교의 힘인 것입니다.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교 명령’

최광경 비오 신부 | 황성본당 주임

갈릴래아로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명령’을 내리시며 파견하십니다. 마지막 파견의 자리인 갈릴래아는 제자들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 장소입니다. 마지막 파견의 자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견하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볼 때 교수신부님이 “왜 신학교 오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얼떨결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 첫 마음의 순수함을 아직도 가슴에 담고 사는가? 라고 반문해 봅니다.

하느님을 살아있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기쁘게 살고 있을 때 하느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선교할 수 있는 힘도 가까운 나부터 하느님으로 충전되어 살 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감동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요.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실성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주님의 유연과 같은 ‘선교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문**

제89차 선교 주일



선교,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갈라 5,6 참조)

“복음을 모르는 이들 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15년 선교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담화문 중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2015년 전교 주일 담화문(요약)

선교는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5년 전교 주일은 봉헌 생활의 해에 거행되어 기도와 묵상에 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봉헌 생활과 선교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삶 전체가 선교적인 것이었기에 그분을 좀 더 가까이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특성을 온전히 지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선교적 차원은 또한 모든 봉헌 생활에 내재된 것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신앙의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오라.” 그리고 “나아가라.” 하고 속삭이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며 또한 그분 백성을 향한 열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저마다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히 봉헌된 이들은 복음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민족들을 향하여 선교의 넓은 변방으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의 반포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모두 이 문서를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성찰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교령은 봉헌 생활회의 강력한 선교 열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느님 은총으로 선교 사명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 사명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선교 이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선포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바로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병든 이들, 무시당하거나 잊힌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루카 14,13-14 참조). 곧 일상적인 불확실성 안에서 가난한 이들처럼 살며 모든 힘의 행사를 포기하고 가장 작은 이들의 형제자매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하느님 사랑의 표징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단체나 선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존재하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봉헌 생활자들의 카리스마와 선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사의 열정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기쁨과 해방과 구원의 원천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종들, 곧 주교, 신부, 수도자, 평신도들의 사명은 모든 이가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음 선포에 협력하는 모든 이를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선교의 모범이신 마리아께 맡겨드리며 모든 이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2015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진정한 소통

이병훈 세례자요한 신부 | 들꽃마을 원장, 3대리구 사회복지 담당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은 죽어서 SNS를 남긴다’로 바뀌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알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SF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텔레파시로 서로 대화하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SNS에 올린 글은 내가 지우려고 해도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며 영원히 나의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만들고 흔적들을 없애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통신은 어느새 점점 하느님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SNS’님은 한 번 만들어진 말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때로 모여서 생각하기에 ‘착한 것은 상주고 악한 것은 벌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통신을 통하여 행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좋아해도 번개나 정모(정기모임)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가장 확실한 소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카카오톡 방이나 SNS 대화방에서 만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모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서로 소통을 하시고 또 당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어 소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름, 무지개, 꿈이나 천사, 예언자 등등을 통해서 간접 소통을 하셨는데 이런 방식은 뭔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직접 소통을 하십니다. 말 또는 글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나눌 때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생명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통은 완전한 소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SNS가 아니라 사랑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사랑, 나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남길 흔적입니다. **필로**

진짜 부자

조선시대 숙종 임금에 어느 날 야행을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을 보며 혀를 차고 있는데 어느 움막에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움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그 사이 문틈으로 방안을 살펴보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올망졸망한 어린 아이들은 짚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부인은 옷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얼굴 표정이 어찌나 밝은지 도무지 근심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숙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 밖에서 들으니 이곳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더이다.”

그러자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빛 갠아 가며 저축도 할 수 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궁궐로 돌아온 숙종은 금방

이라도 쓰러질듯한 움막집에 살면서 빛도 갠 저축도 한다는 말을 들으니 혹여 주인이 몰래 돈을 감춰 둔 것은 아닌지 아랫사람을 시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그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가 주인에게 예전에 했던 말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봉양하는 것은 곧 빛을 갠 것이요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이 아니요?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필문**



금주의 성인

10월 18일	성 유스토(소년, 순교자, 보베, 287년), 성 루카(복음사가, 증거자, 1세기)
10월 19일	성 르네 구필(선교사, 순교자, 캐나다, 1606~1642년), 성 바로(군인, 순교자, 4세기경) (십자가의) 성 바오로(신부, 설립자, 1694~1775년), 성 베드로(신부, 신비가, 알칸타라, 1499~1562년) 성 아퀼리노(주교, 에브뢰, 620~695년경), 성 에트비노(수도원장, 길데어, 6세기경) 성 이사악 조그(선교사, 순교자, 캐나다, 1607~1646년), 성녀 프레데스빈다(수녀, 옥스퍼드, 735년경)
10월 20일	성녀 베르틸라 보스카르딘(수녀, 1888~1922년), 성 아르테미오(사령관, 순교자, 363년) 성녀 이레네(동정 순교자, 포르투갈, 653년경), 성 카프라시오(순교자, 야쟁, 3세기)
10월 21일	성 말코(수도승, 은수자, 4세기경), 성 힐라리온(수도원장, 가자, 291~371년)
10월 22일	성 도나토(주교, 피에졸레, 876년), 성 멜라니오(주교, 루앙, 314년) 성녀 살로메(신약인물, 부인, 1세기경), 성 아베르치오(주교, 히에라폴리스, 200년경) 성 요한 바오로 2세(교황, 1920~2005년)
10월 23일	성 세베리노(주교, 쾰른, 420년경), 성 알루치오(목동, 페쉬아, 1134년) 성 요한(신부, 설교가, 카피스트라노, 1386~1456년), 성 이냐시오(주교, 콘스탄티노플, 799~877년)
10월 24일	성 아레타(순교자, 나그란, 523년), 성 프로클로(총대주교, 교부, 콘스탄티노플, 390~446년)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대주교, 설립자, 산티아고데쿠바, 1807~1870년) 성 야누아리오(신부, 순교자, 303년), 성 펠릭스(주교, 순교자, 티비우카, 247~303년)

■ LA 성 정하상 바오로 본당 사목방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5일(월) LA 성 정하상 바오로 본당(주임 : 나경일 펠릭스 신부)을 사목방문하셨다.

■ 예수성심시녀회 창립 80주년 기념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예수성심시녀회 총원 성당에서 수도자와 평신도 1천여 명과 함께 예수성심시녀회 창립 8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42주간, 2015. 10. 18. ~ 10. 24.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태11-13장	14-16장	17-19장	20-22장	23-25장	26-28장	마르1-3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마태오 복음서』

- 주된 목적은 예수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연결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교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비롯한다. 또한 구약성경을 더 자주 인용하고 율법과 정결례 규정, 유다교 신심에서 중요시하는 기도와 단식, 자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다 지도자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넘어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세상의 메시아이시다.
-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보편적인 선교 사명을 강조한다.

⇒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어 놓으신 희망과 꿈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실현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그 결과가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가만히 있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무국 후원 감사미사	10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10월 20일(화) 14:00 신암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0월 21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10월 21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순례자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21일(수) 19:30 신평성당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1.7(토) 10:00, 다사성당

주제: 하늘의 문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아씨시수녀들과 함께하는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10.24(토)~25일(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2만 원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시: 10.26(월) 10:00~17:00

장소: 교육원 대강당(점심제공)

일정: 대주교님 미사, 강의, 성체현시,

강복 / 강사: 김동일 예수회 신부

문의: (010)5493-1819

매듭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차유 피정

기간: 11.6(금) 10:00~8(일) 2박 3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

마감: 11.2(월) / 참가비: 12만 원

지도: 문봉한(야고보) 신부

주관: 베네딕도 수녀원, 587-7300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14(토) 11:00~15(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010)5490-5345

제주도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0.25~28 / 11.1~4 / 11.9~12

11.17~20 / 11.29~12.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일자: 10.31(토)/ 11.14(토)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주최: 칠곡군-대구PBC / 문의: 251-2610

참조: <http://www.dgppbc.co.kr>

가톨릭신문 성지 순례

기간: 11.26(목)~12.6(일) 10박 11일

장소: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비용: 439만 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참조: <http://www.cttour.org>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일본 4박 5일 성지 순례, 58만 원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스칼라 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9056-9005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 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24평형 계약중, 35평형 마감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광천 이조맛김
사해안 청정해역 영동 김 —
김 · 갯어물 · 젓갈류 판매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 · 저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요르단
출발일: 2016년 1월 19일 (13일)
•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출발일: 2016년 2월 17일 (4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우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대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행사 | 모임

한국미바회 전국 총회 미사

일시: 10.29(목) 11:00, 성모당
미사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참석: 초대총재 이문희 대주교,
유홍식 주교 외 각 교구 대표단
대구미바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의 날

일시: 11.13(금) 18:30~22: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각 본당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마감: 11.1(일)
문의: 노인사목 담당, 250-3077

<천상의 빛> 현대이콘 성화전

천부성당 50주년 기념 후원전
기간: 10.29(목)~11.6(금)
장소: 교구청 내 까리마스 카페 2층
작가: 류봉렬(카마베오)

대구가톨릭학술원 10월 공개 강연회

일시: 10.22(목) 17:30
장소: 교구청 내 꾸르실로 교육관 2층
주제: 신앙과 과학
강사: 이종운(영남대 명예 교수)
문의: 총무, (010)3933-5875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0.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교육 | 모집

2016년도 베드로관 지원자 모집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제12차 영남지역 CPE세미나

우울원화를 통한 자기돌봄과 영적돌봄
일시: 11.1(일) 9:30~16:00 / 3만 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최: 대구대교구 · 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뿌에리 간도레스 합창단 제2기 모집

대상: 초등 3학년~6학년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근로자회관 11월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1.2(월) / 월 3만 원
창세기·마르코: 월, 수 10:10~12:00
낮중급: 2코린토·신명기(화, 금 10:10)
저녁: 신명기·2코린토(화, 목 19:10)
지혜서: 목 10:10 / (010)6506-330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교실,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캘리그라피, POP, 민요, 성인생활영어회화, 초등영어회화·문법, 통기타 가요교실 / 문의: 476-6211

제51차 세계성체대회(필리핀 세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순례단 모집

일시: 2016.1.22~2.1
경비: 294만 원(대회등록, 공동경비 포함)
주관여행사: 가톨릭신문사 투어팀
문의: (02)2281-9070, iec.cbck.or.kr

채용 | 안내

농공 성요셉요양병원 간호사 채용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 할 선생님을 구합니다.
인원: 0명
문의: 간호과장, (010)9391-2643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변영철, 김영홍, 신성순(도미니가)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연세안과
아이디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학교교수
☎ (053)626-8881~5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바오로) 011-514-3855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를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율리우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